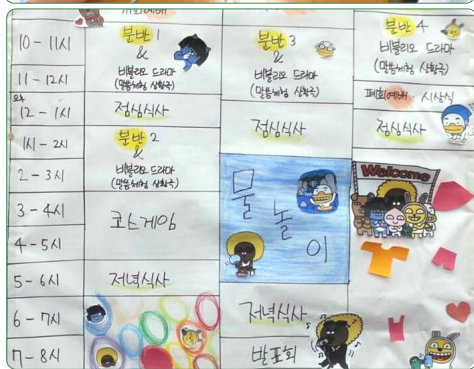


백운교회 교회학교,청년부 여름수련회 현장

어린이 연합 여름성경학교



일시:7월27일(월)~29일(수), 장소:백운교회. 참석교회:백운교회,반석교회,신월교회 주관:서울 광림교회 청년부.

2015년 제천 서지방 연합 여름성경학교는 “하나님의 옷장, 사랑을 입어요”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마쳤다.



중고등부 영어캠프

학생부는 7월27일(월)~29일(수)까지 청주 임마누엘기도원에서 열리는 영어 캠프에 참여했다.

절제되고 철저한 집중캠프는 강의와 훈련을 반복하며 단련시키는 교육과정은 영어를 통한 긍지의 캠프였다.

백운교회 소식

▶광복70주년 중보 미스바기도회

제천 시온성교회에서 100일 동안 광복70주년 회개, 구국, 중보 미스바기도회가 열렸다. 지난 7월 24일 백운교회 신상균목사가 예배 인도하여 큰 은혜를 받았다.



청년부 수련회



청년부 수련회는 7월17일(금)~18일(토) 단양 아름다운 기도원에서 “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-Who am I?”란 주제로 12명(교사포함)이 참여하여 즐겁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였다.

중고등부 수련회



일시:7월25일(토)~26일, 장소:백운교회 교육관.

경험해 보지 못한 뜨거운 예배와 기도, 하나님의 사랑을... 좋은 친구, 학벌, 부와 명예보다 하나님이 최고...



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자치를 막보지 못하리라.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[숨은그림 : 대접(그릇), 핫도그, 요요, 물고기, 낚시바늘]

숨은 그림찾기 응모 시상(7)

그림 속의 숨은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응모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. (8월30일 마감/추첨)
<숨은 그림 : 대접(그릇), 핫도그, 요요, 물고기, 낚시바늘>

이름:	전화번호:
-----	-------

6월호 정답자 발표(6)

6월호 추첨결과 ▶이수길(응평) ▶김경자(평동)▶서옥임(모정)▶이수근(소월)로 결정되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습니다.

발행인: 신상균 목사
총괄제작: 백운교회문화부장
제작실무: 백운교회 간행팀
전화: 043-652-9191
발행일: 매월 첫 주일
Email: vit2be@naver.com
☞이름 이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음.



백운교회 안내 / 백운감리교회는 1904년에 창립된 111년 역사의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.

2015년
“섬기자,하나님을! 섬기자,
교회들! 섬기자,이웃을!”

[제17호] 2015년 8월 2일 발행 [월간] / 창간 2014.4.2



담임목사 신상균

래이다.

그런데 통일이 오지 않았다. 무너질 것 같았던 북한은 그 아들,

그 손자에 이르기까지 굳게 닫혀 있다.

대학생이 되면서 다시 노래를 불렀다.

“♫우리의 소원은 통일, 꿈에도 소원은 통일, 통일이여 어서 오라, 통일을 이루자 ♫”

통일을 이루자고 목소리 높이 외치면서, 열심히 뛰어 다녔다.

그러나 통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.

광복 70주년, 참으로 뜻 깊은 날이다.

“♫우리의 소원은 통일, 꿈에도 소원은 통일, 통일이여 어서 오라, 통일을 이루자 ♫”

어린 시절 참 많이 불렀던 노래이다.

세상 사람들은 70주년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, 교회에서 70주년은 매우 뜻 깊은 날이다.

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후 그들의 나라는 없어지고,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다.

그렇게 70년이 흐른 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옛 고향 땅으로 돌아온 해이기 때문이다.

친 것일까? 그렇지 않다.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던 것이다.

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루어지는 일을 기적이라고 한다. 광복은 기적이었다.

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기적을 바란다.

그것은 통일이다.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소도 갖다 주고, 기술 지원도 해 주고, 공장도 세워주었지만 아직도 떨기만 하다.

다.

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

엘을 70년 만에 광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.

난 기도한다.

“하나님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주시옵소서. 아멘”

알림

항상, 원고를 기다립니다.

본지를 통해 백운면 및 개인 대소사, 소식을 알리려면 전화주세요.

전화:043-652-9191

대한민국 광복70년

“위대한 여정, 새로운 도약”



백운교회